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130 (예수 부활하셨네)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제 1독서 | 사도행전 10,34-37,43

화답송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좌)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우)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좌)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독서 | 콜로새서 3,1-4

<부속가 - 2독서 후에 다함께 부속가를 바칩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



Today's Gospel, <John 20:1-9>

It was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nd still dark, when Mary of Magdala came to the tomb. She saw that the stone had been moved away from the tomb and came running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the one Jesus loved. 'They have taken the Lord out of the tomb' she said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So Peter set out with the other disciple to go to the tomb. They ran together, but the other disciple, running faster than Peter, reached the tomb first; he bent down and saw the linen cloths lying on the ground, but did not go in. Simon Peter who was following now came up, went right into the tomb, saw the linen cloths on the ground, and also the cloth that had been over his head; this was not with the linen cloths but rolled up in a place by itself. Then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 he saw and he believed. Till this moment they had failed to understand the teaching of scripture, that he must rise from the dead.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찔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 외젠 뷁르낭(1850~1921)



나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사흘 전 무덤에 모셨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대로 먹거나 자거나 얼굴을 손질하지 못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도 요한은 기도하듯 두 손을 꼭 쥐고 달립니다. 눈빛과 표정은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부활하셨나?’ 이것은 의문이라기보다 간절한 희망입니다. 한편 베드로 사도의 휘둥그레한 눈은 더 복잡한 심경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뒤 낮이 나간 듯한 눈망을 속에는 그분을 뵈면 왈칵 눈물이라도 쏟을 것 같은 회한이 어려 있습니다. 고기잡이로 험해진 손, 오른손은 믿음과 사랑을 뜻하는 심장에 얹혀 있고, 왼손은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셈하는 듯합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을 담고 있는 이 그림은 사도들 주위에 번져 있는 노란 아침 햇살로 이미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누구를 만나러 가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를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니까요. 달리고 있는 사도들의 눈망을 속에 이미 와 계신 것처럼 말이지요.

<대전교구 김유정 신부>

부활에 대한 증언들은 물론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 증언들은 유일무이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 현실의 새로운 차원이 열림에 대해 말한다. 기존의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여태껏 알아왔던 것 이상의 차원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이 과학에 모순되는가? 늘 있어왔던 것만이 정말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는가? 하느님께서 계신다면, 그분은 인간 됨의, 현실의 새로운 차원 또한 창조하실 수 있지 않은가? 본래 창조는 이 결정적인 최고의 ‘진화의 도약’을 기다리지 않는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결합을,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겨합을, 죽음의 극복을 기다리지 않는가? 모든 생명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의 원천들은 거의 눈에 보지 않을 만큼 작아서 지나치기 십상이다. 주님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마태 13,31-32; 마르 4,30-32; 루카 13,18-19) 그러나 작은 겨자씨는 그 안에 하느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부활도 세계사적으로는 잘 증명할 수 없다. 예수 부활은 역사의 가장 작은 겨자씨다. 이는 하느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다. 위대하고 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작은 것이다. 작은 겨자씨는 정말 큰 것이다. 이처럼 부활은 단지 선택된 이들에게 나타난 몇몇 신비스런 현현을 통해 비로소 세상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침묵 속에 기다려온 본래적인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증인들에게 그것은 그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몹시도 놀라운 현실 사건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모든 의심이 사라진 후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두려움 없이 세상 앞에 등장했을 정도로, 부활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2권, 309-310p>

공지 사항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1. 교구 다문화 미사 (Multicultural Mass)

- 일시: 4월 7일(주일), 11:00AM
- 주소: St.Christopher Cathedral, 55 Franklin Street Forrest ACT 2603

* 당일 오후 3시 한인 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 미사 후 대성당 옆 '교구청 1층 홀'에 간단한 다과 및 음료수가 준비됩니다.

2. '여정 - 시즌 1' 안내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기간: 5월 12일(주일) ~ 6월 30일(주일) (총 8회)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3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5월 11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3월 17일	유아·청소년: 21명	성인: 56명
3월 24일	유아·청소년: 26명	성인: 55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3월 31일)	허준 안토니오, 이민정 글라라
4월 14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3월 31일)	요한반
4월 14일	루카반

| 우리들의 정성 | (3월 23일 ~ 3월 29일)

봉 헌 금	\$276			
교 무 금	\$560			
김요한	김정수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대	이국원	이지영	이재희	장호훈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 세례를 받은 박서영 비아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